

# 이란 영화 세계를 탐구하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 회고전  
오늘부터 31일까지 광주극장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등 9편  
유운성 평론가·나희덕 시인 토크



이란의 영화감독 회고전이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스틸컷.

'올리브 나무 사이로', '체리 향기', '사랑을 카피하다' 등을 연출한 이란의 영화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Abbas Kiarostami).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필름에 담아 현실과 영화의 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의 영화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회고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이번 회고전은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리며 광주시내마태극과 광주극장이 주최하고 광주시,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1940년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난 키아로스타미는 국립테헤란예술대학교에서 미술과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다. 그는 1987년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로 청동 표창상을 비롯한 7개 부문을 수상하며 47세의 나이에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회고전에서는 초기작 '여행자'(1974)를 포함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1987),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1992), '올리브 나무 사이로'(1994)로 이어지는 '지그재그 3부작',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체리 향기'(1997), '24 프레임'(2017) 등 모두 9편이 상영된다. 또 영화제 기간 중 유운성 영화평론가, 나희덕 시인의 시네토코도 마련된다.

장편 데뷔작인 '여행자'는 작은 마을에 사는 열두 살 소년 가센의 이야기다. 축구를 좋아하는 가센은 어느날 축구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혼자서 240km 남게 떨어진 테헤란으로 떠나기로 마음 먹는다. 영화는 1970년대 이란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이란 북부 3부작' 혹은 '지그재그 3부작'으로 불리는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인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친구의 집을 찾는 한 아마드의 하루를 그린 영화다. 아마드는 숙제를 제대로 안해 매일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짜증 넘은 네마지데의 공책을 가져와 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민에 빠진다. 언덕을 넘고 올리브 나무 숲을 지나 친구의 집을 찾아 나선 아마드. 낯선 마을에서 밤 늦게까지 나타 자데의 집을 찾아 헤매다 지쳐 집에 돌아온 아마드는 친구의 공책을 펴고 숙제를 대신 하기 시작한다.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본 '작한 세상'이 소박하게 펼쳐진다.



압바스 감독.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는 1990년 이란 북부에서 발생해 5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지진을 배경으로 한다. 극중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아들을 데리고

코케로 향한다. 아마드와 네마지데가 살아있는지 걱정돼서다. 영화는 감독과 아들 역으로 출연한 두 배우가 두 아이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마지막 '올리브 나무 사이로'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의 메이킹 필름의 형식을 띤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를 찍을 무렵 지진 직후의 폐허에서 결혼식을 치른 신혼부부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했다.

'체리 향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남자 바디가, 동승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느끼게 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

키아로스타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만든 마지막 장편 '24 프레임'은 느리게 움직이는 다양한 형식의 풍경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며 세계의 형상이 영화 안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탐구한다.

한편, 오는 18일 오후 3시 '체리향기' 상영 후에는 유운성 영화평론가와 나희덕 시인이 토크를 하고, 24일 오후 5시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를 보고 난 후에는 나희덕 시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펼쳐진다. 문의 062-224-5858.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공동체 탄생 회원들이 온라인상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

## 첼로·무용·뮤지컬... 청년 예술인 열기 느끼다

1~3일 '빛고를 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

'빛고를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은 예술전공 고교생, 대학생, 20~30대 청년 기획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연이다. 지난 2월 공모를 실시해 12개 단체가 선발됐으며 지난 4월 청년 단체 '트리오 제트'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1일부터 3일까지 빛고를시민문화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청년 예술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 나눔이 펼쳐진다.

먼저 1일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청년 기획자 김유진의 무용공연 'Share the stage'가 펼쳐진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용수들이 현대무용·한국무용·실용무용 등을 선보인다. 선착순 260명 관람 가능.

그나데첼로콰르텟의 '첼로를 사랑한 음악가들' 공연은 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첼로의 매력을 선보이는 무대로 유림작곡가 핏젠하겐, 베르너, 포퍼, 베토벤, 랭고의 거장 피아졸라 등 다양한 작곡가의

음악을 첼로 음색으로 들려준다.

그나데첼로콰르텟은 광주 유일의 첼로 콰르텟으로 첼리스트 4명이 지난 2020년에 결성했다. '그나데'는 독일어로 '은혜'라는 뜻이며 4명의 첼리스트 모두 해외 유학파들이다. 조은강, 조혜원, 윤지혜, 서지수 등이 출연한다. 선착순 50명 관람 가능.

7월3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문화공동체 탄생 뮤지컬 길라 콘서트 'ZOOM IN(줌인)'은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이다. 우울감을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들려준다. 공연 속 인물은 H(상담선생님), N(간호사), A(뮤지컬배우 지망생), C(카페사장), T(초등학교 교사) 등 영어이니셜로 표현했다.

만청은 청년 문화예술단체로, 뮤지컬 장르에 대한 벽을 낮춰 소통하는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선착순 50명 관람 가능. 문의 062-670-729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회적 경제박람회'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

## 가상현실 몰입 콘텐츠 교육

ACC, 6일까지 희망자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적 경제 광주주어, 광주 나눔 장터, 문화예술공연, 지구환경 살리기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문화재단은 공예·문화체험·체육용품 운영·판매하는 업체 12곳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추진했다. 이용자들은 '남도청년보부상협동조합', '하이교협동조합', '행복가족협동조합' 등 총 12곳 가맹점에서 업사이클링 패브릭 수공업품, 나만의 부채 만들기 체험, 재활에 효과적인 운동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4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상현실과 확장현실 등 몰입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체융합 교육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은 'ACT 몰입형 입체융합 공동연수'를 오는 9일부터 ACC 스튜디오2에서 매주 금요일 9차례 진행한다. 이번 강사는 서울에대 피정훈 교수와 컬처커넥션 유현식 대표이며, 입체융합 이론과 기술을 비롯실습 교육이 병행된다.

주요 내용은 '멀티채널 스피커 셋업 실습 및 청취', '3D 입체융합 레코더를 활용한 녹음', '오디오 프로그램 활용', '게임엔진 3D 엔진 내부 오디오 기능 실습' 등이다.

희망자는 ACC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marte@dongguk.edu)으로 오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로 5~10명 선별. 문의 062-601-4559.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설계 당선작 선정

### 아이엔 '차경-경치를 빌리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하수)은 디지털 복합문화관의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아이엔의 '차경-경치를 빌리다'(사진)를 선정했다.

당선작은 고분 속 박물관, 전원 속 박물관인 나주박물관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바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넓은 경치와 하늘을 돋보이게 하는 푸른 숲을 강조했다.

외부경관은 사적지 주변 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해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살리고, 주변의 고분은

내부로 끌어 들인 전통건축 원리인 차경 개념을 구체화했다.

건물의 내부공간은 고분군을 내부로 끌어 들일 수 있는 경관도로, 디지털 문화공간을 아우르는 빛통로, 그리고 관리자를 위한 서비스로 등 세 개의 동선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물관 부지내에 건립될 디지털 복합문화관은 연면적 4500㎡, 총사업비 198억원을 들여 300석 규모의 공연장, 어린이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박물관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해 지난 4월 설계공모를 했으며 그 결과 모두 7개 작



품이 접수됐다. 입상작은 2등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이 차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